

중소 2곳 중 1곳, 규제애로 경험… ‘해결’보다 ‘순응·포기’

중기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실태조사’
규제애로 45%… 해결 노력은 37%
해결창구 1순위 지자체, 옴부즈만 2.2%
옴부즈만 인지도 31%, ‘모른다’ 69%
崔 “접근성 제고, 지자체 연계 강화”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규제애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 해결보단 규제에 순응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안다’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45%로 절반에 가까웠다.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등이 주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는 기업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대다수 기업이 해결 방안을 찾기보단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규제 해결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해결하거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 이 아님’(11.5%) 등의 이유도 많았다.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 수준이었다.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으로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

즈만을 찾는다는 답변은 고작 2.2%에 그쳤다.

많이 찾는 기관의 경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거나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규제 해결을 위해 찾는 해결 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아서’가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았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 등 인식하고 있는 곳은 응답 기업의 31%에 그쳤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이 전체의 69%에 달해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6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장

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 ‘규제 해결 권한 강화’(13.2%) 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기업들은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해결 가능성과 전문성에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절반 가량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해결보다 사업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포기가 아니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창업기업 늘었지만 매출·고용은 ‘주춤’

창업기업 490만개, 전년비 1.5% 증가
종사자 833만명·평균 1.7명으로 감소
매출 1134조·평균 2.3억 4.3% 줄어

사업을 시작한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사자와 매출액은 다소 주춤했다.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1.7명, 평균 매출액은 2억3000만원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20일 내놓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기업은 490만2000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창업기업 숫자는 2021년 454만9000개, 2022년 483만개였다. 이 기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도 90만2599개(2021년)→96만4893개(2022년)→97만8847개(2023년)로 점점 늘었다. 5곳 중 1곳이 기술기반업종으로 창업했다.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1911만8000명)의 43.6%인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833만명(평균 1.7명)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는 249만9000명(평균 2.6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30%를 차지했다.

창업기업 전체 매출액은 중소기업(3301조3000억원)의 34.4%인 1134조6000억원(평균 2억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떨어졌다. 이중 기술기반업종 매출액은 28.2%인 320조원(평균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창업가의 83.2%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다고 답했다. 실패 경험을 살려 다시 도전하는 재창업기업은 전체 29.0%, 평균 재창업 횟수는 2.2회로 조사됐다. 아울러 창업자의 64.8%는 ‘더 큰 경제적 수입(64.8%)’을 위해 창업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창업 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평균 2억6000만원으로 주로 자기자금(95.2%)을 통해 조달했다.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등도 활용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2023년은 엔데믹 전환과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돼 창업 지면은 확대됐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밸류체인안정화자금 1985억 푼다

네트워크론 1395억·팩토링 590억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21일부터 총 1985억원 수준의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네트워크론) 1395억원,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590억원이 포함돼 있다.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한 발주기업이 수주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중진공이 발주서를 근거로 수주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 대금은 발주기업이 중진공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이는 중진공의 기존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공급망연계 금융으로, 발주서를 기반으로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한 수주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제조업은 2분의 1 이내)로 최대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잔액 한도 2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는 발주기업이 추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지원 한도가 일부 확대된다. 대기업은 200억원에서 250억원, 중견기업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해 생산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수주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돕는다.

/김승호 기자

상생페이백 누적 1.306조… 1인당 평균 11만원 받아

중기부, 작년 9~12월 누적 지급 결과
소상공인 지원·소비촉진 효과 ‘톡톡’

지난해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국민 1170만명이 총 1조3060억원을 받아갔다.

1인당 평균 11만1570원 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2025년 9~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누적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

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 9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꼴인 1564만명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분의 3 수준인 1170만명이 한 차례 이상 상생페이백을 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과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페이백을 받은 1170만명의 2024년 월평균 대비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 증가액은 17조7972억원을 기록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289억원에서 12월 4조988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9~11월 국내 9개 카드사의 개인카드 사용액 통계를 보면 월별 카드 소비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각각 4.8%, 2.3%, 4.5%였다. 2024년 9~1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 2.8%, 2.7%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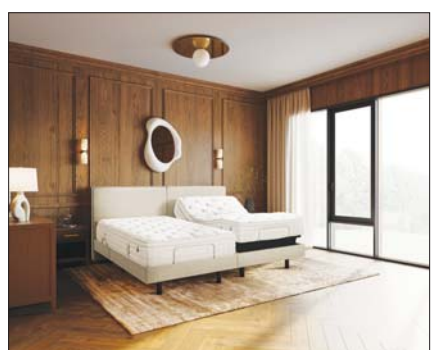
단품 할인 넘어 세트 등 혜택 강화

신세계까사(SHINSEGAECASA)가 새해를 맞아 2월 22일까지 신년 프로모션 ‘뉴 스타트 페스타’를 진행한다.

20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새해 집안 분위기 전반을 새롭게 바꾸길 원하는 집단장 수요를 겨냥해 까사미아와 마테라소의 주요 가구를 주거 공간별로 제안한다. 단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세트 및 연계 구매 혜택을 강화해 공간 전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베드룸은 프리미엄 수면 브랜드 마테라소를 중심으로 신제품부터 대표 제품까지 폭넓은 혜택을 선보인다.

신제품 스마트 모션베드 ‘르 무브’와 비전 폼 매트리스 ‘오아시스 세도나’는 출시 기념 특별 혜택을 준비했다. 각각



신세계까사의 마테라소 르 무브 모션베드&오아시스 폼 매트리스.

단품으로 구매 시 회원 등급에 따라 최대 15%, 두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테라소의 대표 매트리스 라인업도 다양한 구매 혜택을 마련했다. 럭셔리 매트리스 라인 ‘헤리티지 컬렉션’은 단품 구매 시 최대 25%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